

# 올바른 글쓰기의 방향과 세한대학교 '글쓰기' 교양 교과목 <사고와 표현>의 실용적인 교육을 위한 제언

Direction of Correct Writing and Suggestions for Practical Education  
of Sehan University's 'Writing' Liberal Arts Subject <Thoughts and Expressions>

김성철\*\* · 김미경\*\*\*

**국문요약** 교육과 학습이 최고의 높이에 도달하는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 요건이 글쓰기다. 글쓰기 능력이 곧 사고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통합적으로 성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속한 사회와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 자질이다. 대학인은 다양한 텍스트를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글로 정리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습 활동에 수반되는 비판적인 글쓰기 능력을 기른다. 글쓰기는 낱말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글쓴이의 삶의 가치가 반영되는 정체성 찾기의 과정이다. 문장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훈련이다. 이제 글쓰기는 고급 지식과 권력을 가진 일부 전문가의 독점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되었다. 그동안 수동적인 독자의 역할에 머물던 보통사람들이 글쓰기의 주체로 등장했고 정치/사회적인 이슈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사나 경험담 등을 다룬 의미 있는 글을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활발하게 공유하고 다시 인쇄 매체를 통해서 재생산한다. 글쓴이는 새롭게 관련 분야의 지식 생산자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올바른 글쓰기의 방향을 살펴보고, 세한대학교의 효율적인 글쓰기 교육에 필요한 실천적 제언을 모색한다.

**핵심어** 교양지식 전공 글쓰기 소통과 정체성 지식생산

- 차례**
1. 서론
  2. 올바른 글쓰기의 방향
  3. 세한대학교 <사고와 표현>의 실용적인 교육을 위한 제언
  4. 결론

## 1. 서론

대학에서의 교양 지식은 전공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다. 대학생은 새로운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보를 판단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동적 주체이다. 인간과 인공지능 기체가 함께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삶을 더 유용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제 간 연구로 대학인은 지식 융/복합형 인재로서의 소양과 전문지식 함양하고자 노력하고 학문적 담화와 소통을 증진한다. 교양 교과목의 목표는 기초 학문의 내실화, 인성 교육, 자기표현 능력 함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신을 성

• 이 논문은 세한대학교 2024년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1저자)  
•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교신저자)

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 자질이다. 다양한 텍스트를 분석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불신을 바로잡기 위한 통합적이고 비판적인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대학 교양 교육의 주요 임무이다.<sup>1</sup> 자신의 사고와 감정, 권리 그리고 관심사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자기표현은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시민, 자국의 시민인 동시에 지구촌을 생각하는 세계시민”의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2</sup>

최근 대학에서는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강화하고 있다. 대학마다 학부 대학이나 기초 대학, 교양 대학 혹은 교양 교육원을 두어 교양인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에서 원활하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능력 향상에 걸맞은 글쓰기 교육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글쓰기는 모든 전공 영역에서 기본 교과목으로 여겨진다. 기존 제도 교육에서 글쓰기란 글쓰기를 직업의 기반으로 하는 인문학 연구자에게만 필요한 과목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인간의 상상을 현실화하는 자연과학자나 사회의 가치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사회 과학자에게도 글쓰기란 중요한 과업이다, 글쓰기는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창조하는 마케팅 담당자나 실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사업자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엔지니어에게도 창의성과 논리성을 학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양과목이다.<sup>3</sup>

교육과 학습이 최고의 높이에 도달하는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 요건이 글쓰기다. 글쓰기 능력이 곧 사고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 사유하고 표현하며, 글쓰기를 매개로 공감하고 연대한다. 우리는 글쓰기와 더불어 자기를 성찰하고 타자와 소통하면서 인간

과 세계의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해 나간다. 글쓰기 교육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4</sup> 자기성찰 또는 자기표현에 중점을 둔 글에는 일반적인 체계와 형식이 있으며 그런 절차에 따라 쓰는 것을 익히고 연습하는 것은 대학인에게 필수 과정이라고 여겨진다.<sup>5</sup> 정확한 어휘사용과 문장/문단 구성에서부터 단계별 글쓰기 학습 과정을 거쳐 퇴고에 이르기까지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나가는 힘은 학술적 담화 공동체인 대학에서 언어적 기술과 문식성을 개선하는 실용적인 목적을 실현한다.<sup>6</sup>

1990년대 후반 이후 오늘까지 만들어진 다수의 대학 글쓰기 교재,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체제에 대한 연구성과, 우수 교육사례 등은 글쓰기 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왔고, 과학적인 교수학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의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권혁명은 고려대학교의 글쓰기 교과목인 <사고와 표현>의 강의 방식을 소개하고 교재 중심의 표준 강의안 개발과 첨삭 지도 연구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up>7</sup> 조미숙은 건국대학교의 <사고와 글쓰기> 교과목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방법 개발, 대학 도서관과 연계한 글쓰기 활동,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구축 등의 개선 방안을 지적하였다.<sup>8</sup> 김화선과 이희영은 전국 42개 대학의 기초 글쓰기 교육 현황 및 글쓰기 지원 부서, 비교과 프로그램과 함께 배재대학교의 글쓰기 기초 교과목인 <사고와 표현>과 심화 교과목인 <성공 취업 글쓰기와 토론> 등을 소개하고 전담 부서인 글쓰기 교실의 내실화와 비교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9</sup>

1 고려대학교 사고와 표현 편찬위원회, 『대학 글쓰기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3쪽.

2 우기동, 「대학 시민교육, 그 철학적 토대」, 『시대와 철학』 2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3, 241쪽.

3 서재원, 『대학 글쓰기와 토론』, 도서출판 북스힐, 2013, 20~21쪽.

4 글쓰기 교과 교재편찬위원회, 『성찰과 표현』,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4쪽.

5 대학 글쓰기 교재편찬위원회, 『대학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공통),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1쪽.

6 정희모, 「디지털 시대에 주체회복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 『한민족어문학』 71, 한민족어문학회, 2015, 16쪽.

7 권혁명, 「대학 글쓰기의 교육현황과 그 발전 방향: 고려대학교 <사고와 표현> 강의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20호,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2012, 149~170쪽.

8 조미숙, 「대학 기초 글쓰기 현황과 개선 방안」, 『동남어문집』 42호, 2016, 271~298쪽.

9 김화선/이희영, 「대학 글쓰기교육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교양

정기철은 글쓰기 수업에서 문화 분석과 비평, 주제 중심의 글쓰기 학습이 너무 과다하고 글쓰기의 전체 과정에 대한 학습 플랜이 없다고 비판하고, 정확한 표현력과 논리성의 확장이라는 글쓰기의 실리적인 목표를 명확히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10</sup>

한편 전지니는 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동기부여와 흥미를 자극하여 실용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 신입생에게 결핍한 사고력을 채워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1</sup> 이주영은 글쓰기 교과목이 읽기-쓰기 통합 교육의 성찰적 과정을 통해 실용적 지식과 개인적 지적, 감성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특히 글쓰기의 요건으로서 다양한 문학 텍스트와 칼럼을 읽으면서 글쓰기 방법과 기술, 소재와 주제를 습득하고 글 쓰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12</sup>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교수자의 편에서 글쓰기의 전략적 방법과 이론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이제는 학습자의 지적 수준과 요구를 먼저 고려하여 대학마다 맞춤형 글쓰기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세한대학교의 글쓰기 수업 방법을 되돌아보고 가장 실용적인 글쓰기 방법을 고민하게 된 이유다. 교양 수업 전반을 관리하는 세한대학교 구암교육원에서 개설한 <사고와 표현>은 여러 유형의 텍스트 읽기를 권하면서 사고력을 자극하고 글쓰기 학습 과정의 간단한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고 연습으로 원리와 방법을 익히는 기초 글쓰기 교과목이다.

본 논문에서는 글쓰기에서 대학인이 주목해야 하는 논거, 즉 통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토대로 정체성을 탐색하면서 소통과 지식 생산에 중점을 둔 올바른 글쓰기의 방향을 살펴보고, 세한대학교의 효율적인 글쓰기 교육에

필요한 실천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올바른 글쓰기의 방향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오늘날의 훌륭한 문명을 꽃피우게 했다. 인간은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타인의 글을 읽고 잘 이해하는 지적 능력만이 아니라 몸소 겪은 체험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낱말의 정확한 사용은 물론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바른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것은 타자에 대한 인정과 인격 존중의 정신을 지닌 성숙한 인성 교육의 과정이고, 글쓰기 훈련은 지성인으로서의 정신적 규율을 습득해 가는 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쓰기에는 정확한 대상과 목적, 글을 이해해 주는 독자가 필요하다. 글쓰기란 우리의 삶을 희망적이고 행복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문제해결의 능력을 키우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타인과 공동체와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우리를 외부세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글쓰기가 담당하는 것이다.<sup>13</sup>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본 자질도 인문학적 소통이다.<sup>14</sup>

소통은 단순히 나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전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통은 근본적으로 타인의 사고에 나의 사고가 전달되고 공유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이다. 경청하지 않는 소통, 일방적인 전달자로서의 소통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다. 참된 소통은 수직적 관계보다는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수평적 관계에 기인한다. 주체와 타자, 타자와 주체 소통성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등하고도 서로 존중받는 관계여야

교육연구」 1권 1호, 한국교양연구학회, 2007, 93~114쪽.

10 정기철, 「21세기 대학 글쓰기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남어문집』 제 33편, 2009, 23~24쪽.

11 전지니, 「수용자를 위한 대학 글쓰기 교재 개편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 36집, 2015, 78~105쪽.

12 이주영, 「대학 글쓰기의 성찰적 효과 연구: 자서전과 칼럼 글쓰기의 교육 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2, 1~25쪽.

13 경기대학교 글쓰기 연구회 엮음,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고요아침, 2011, 19쪽.

14 정기철, 「21세기 대학 글쓰기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를 중심으로」, 28쪽.

하는 것이다. 글쓴이의 자세가 바르지 않을 때 그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글쓴이는 보이지 않는 독자를 항상 상기해야만 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독자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글쓰기에서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sup>15</sup>. 개인주의적 감정에 따른 사고방식은 자칫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 진정한 글쓰기는 독선을 벗어나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감정이 생기는 동시에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상대와의 교류와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sup>16</sup>

글은 나와 타자와의 소통뿐 아니라 나아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해 가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글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여러 사물과 사건들을 생각하고, 그것들과 관계를 맺게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묻게 된다. 글쓰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활동이고, 글쓴이와 그들의 생각이 글 속에 진실하게 담겨 있어야 한다. 대학인은 자신의 사고, 느낌과 감정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여 의도한 대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도 충분히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글쓰기는 낱말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글을 쓰는 주체의 생각이 반영되는 정체성 만들기의 과정이다. 문장 하나 하나가 자기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sup>17</sup> 다시 말하면 글쓰기를 통해 내적 성장, 인격과 자기 탐색을 구현한다는 것이다.<sup>18</sup>

우리가 자기 이해와 자기발견에 이르는 유용한 수단으로 성찰적 글쓰기를 들 수 있다.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으로 여겨지며 성찰적 글쓰기는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삶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장 높은 차원의 사유 과정이자 자아를 통합하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sup>19</sup> 성찰적인 글이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의 일상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훗날에도 기억하고 싶은 의미 있는 경험, 그리고 그런 경험에 기인한 여러 생각이나 느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sup>20</sup>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찰하는 글쓰기를 통해 '나'는 개인으로서의 주체성과 정체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태도를 회복할 수 있다.

지식사회의 도래는 책으로 대변되는 글쓰기의 공유와 문자의 상용화에서 비롯되었다. 새로운 세대에게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게 하는 것이 글쓰기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지만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식 생산이란 글쓰기를 통해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사고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인간은 문자를 통하여 새로운 개념을 창출할 수도 있으며 그것을 변형하여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또 글을 쓰는 작업을 거쳐 모호한 대상에 대해 구체화할 수 있으며, 그 근원에 대하여 깊이 성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은 자연스럽게 생산되고 공유된다.<sup>21</sup>

인터넷과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조성된 다매체 환경에 힘입어 대중의 표현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제 글쓰기는 고급 지식과 권력을 가진 소수 전문가의 독점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동안 수동적인 독자의 역할에 머물던 보통사람들이 글쓰기의 주체로 등장하고 정치/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사나 경험담 등을 다룬 다양한 글을 사이버 공간에서 폭넓게 나누고 다시 인쇄물들을 통해서 재생산한다. 글쓴이는 새롭게 관심 분야의 지식 생산자가 된다.<sup>22</sup> 대학인은 지식 정보의 생산과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15 고려대학교 사고와 표현 편찬위원회, 『대학 글쓰기의 이해』, 17~19쪽.

16 장미영 외, 『융합 시대의 교양 글쓰기』, 글누림출판사, 2017, 2쪽.

17 고려대학교 사고와 표현 편찬위원회, 『대학 글쓰기의 이해』, 12~20쪽.

18 주민재, 「자기서사 쓰기의 스토리텔링 전략 분석」, 『한민족어문학』 71, 한민족어문학회, 2015, 180쪽.

19 고성환, 이상진, 『글쓰기』, 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19, 287쪽.

20 상명대학교 사고와 표현 편찬위원회, 『사고와 표현』, 역락, 2020, 161쪽.

21 고려대학교 사고와 표현 편찬위원회, 『대학 글쓰기의 이해』, 21~22쪽.

22 오성호, 『대학 글쓰기』, 세문사, 2008, 11~12쪽.

좋은 글을 평가하는 기준은 내용, 구성, 표현 등 다양하다. 여기서는 의사소통 능력, 자기 탐색과 정체성 구현 그리고 지식 생산이라는 글쓰기의 목적이나 의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내용의 측면에서 올바른 글쓰기 방향을 제시하였다.

### 3. 세한대학교 <사고와 표현>의 실용적인 교육을 위한 제언

많은 대학에 설강된 글쓰기 교과목은 대개 기초 글쓰기와 전공기반 심화 글쓰기로 구분되어 한 학기만 2학점 내지는 3학점으로, 또는 두 학기에 걸쳐서 2학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2학점의 <사고와 표현>을 한 학기만 운영하는 세한대학교의 경우, 여러 글쓰기 항목을 가르쳐야 하는 교과학습 분량에 비하면 시간이 짧고 다소 아쉽다. 그래서 학과별로 학술 발표 보고서나 졸업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도교수에게 심화 글쓰기 교육을 받고 있다. 학술적인 글이나 전문적인 글은 담화 공동체의 표현 양식이나 규약과 같은 담화 관행을 익히고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에서 쓰는 학술 보고서라면 해당 전공의 전문 용어 및 논문 체제 양식을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공 교수가 주요 학술지의 논문작성 방법 및 원칙을 안내하고 전문적 글쓰기의 훈련과 피드백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세한대교 신입생은 학문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의지는 강하지만 기초 학습 실력이나 논리적인 사고력과 표현 능력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무턱대고 그들에게 글쓰기의 잡다한 이론과 실재를 설파하고 매주 연습 과제를 부여한다고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없다. 교과목 주제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학습자는 우선 당혹감을 느낀다, 보고서를 받아 보면 천차만별이다. 겉표지도 없고, 글의 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제목, 소속이나 학번

을 쓰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신입생들은 대부분 보고서를 한번도 써본 경험이 없고 작성방법을 공식적으로 배운 준 적도 없다. 그들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논리적 맥락을 이룬 보고서를 완성할 수 없다.

대학이라는 담화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글쓰기 작업이 정말 무엇인가! 글쓰기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세한 이론 설명은 최대한 피한다. 기본 학습으로서 단어 및 문장 바로쓰기, 논설문 쓰기에 대한 명료한 이론과 방법을 익힌다. 특히 논설문 쓰기에서는 논술의 개념, 주제를 좁혀 잡기, 개요 짜기, 단락 쓰기, 서론을 쓰는 방식, 본론을 진술하는 방식, 결론을 쓰는 방식, 제목 붙이기 그리고 퇴고하기 등의 글쓰기 과정의 필수 요소를 다룬다.<sup>23</sup>

우선 입학 이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글쓰기 유형인 대학 보고서의 쓰기 방법, 독서 감상문 및 자기소개서, 인터넷 글쓰기 등의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을 살펴본다. 학습자 개개인이 보고서 하나하나의 작성 과정에 참여하는 체험 학습에 중점을 둔다. 학습자는 학기 말에 제출된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는 앞으로 계속되는 여러 글쓰기 작업에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완성도를 높인다. 그리고 세한대인들의 글쓰기 컨설팅을 위한 글쓰기 교실의 운영과 그 활동 방안을 제언한다.

#### 3.1. 대학 보고서

##### 3.1.1. 보고서 쓰기의 방법

흔히 대학생들이 제출하는 보고서 형식의 과제를 논문과 구분하여 리포트라고 한다. 리포트는 주로 담당 교수가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과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실이나 결과를 형식에 맞게 정리하여

23 한효석,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 한겨레출판, 2019, 259쪽.

제출하거나 조별로 특정 주제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협업 학습, 발표 및 토론/토의의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 논문은 문제의 발견이나 이론적 고찰, 또는 비평과 대안이 뒤따르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글이다. 보고서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표지→차례→본문→참고자료→부록의 형식을 갖는다.<sup>24</sup>

보고서는 담당 교수가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과제로 주제를 미리 지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쓴이가 좋은 보고서를 쓰려면 먼저 주어진 과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보고서의 주제와 범위, 목적 등을 결정하고 나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최근 자료를 대학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다.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특히 교수의 의견과 논점을 고려하여 글의 개요를 작성하면 된다. 개요에서는 새로운 관점에 따라 미리 정해진 주제를 구체화해야 하고, 보고서의 목적에 따른 작성 형식과 방법, 분량, 일정 등을 점검한다.<sup>25</sup>

초고 작성은 보고서를 직접 쓰는 단계이다. 초고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문장을 간결하고 쉽게 써야 하며 정확한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 중심 문장을 두괄식으로 쓰고 나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 줄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자료의 출처를 인용이나 주석을 달아 밝혀야 한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처음(서론)→중간(본론)→끝(결말)의 3단 구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부분은 대개 교수자의 관심을 자극하고 주제를 환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 중간 부분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 등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쓰인다. 끝부분은 내용을 요약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강조하여 앞으로의 전망이나 제언을 덧붙여 글을 끝맺는 역할을 한다.<sup>26</sup>

24 박호관 외, 『대학 글쓰기』, 대구대학교 출판부, 2013, 197쪽.

25 강은교 외, 『사고와 표현: 우리 시대 글쓰기와 말하기의 방법』,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6, 36~37쪽.

26 대학글쓰기 교재편찬 위원회, 『대학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공통), 21쪽.

초고 작성 이후에는 재구성의 원칙, 부가의 원칙, 삭제의 원칙에 따라 글다듬기를 해야 한다. 재구성의 원칙은 주제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으로 전체 주제와 문단 주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등이 보고서의 목차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내용 전개가 주제와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부족한 내용은 보완하고 또한 과한 부분의 일부를 삭제한다. 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정서법에 맞게 쓰였는지,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장이나 오타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고서를 완성한다.

### 3.1.2. 독서 감상문, 조사 보고서와 실험 보고서

요약/정리 보고서는 인문/사회 계열은 물론 자연 과학이나 이공 계열에서도 요구되는데, 담당 교수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과제는 교과 내용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요약/정리하는 것이다. 요약은 책을 정독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데 유익하다. 요약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책을 꼼꼼히 읽고 전체 논지와 논리 전개 방식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락별로 소주제문을 찾아 그것을 연결하여 쉽게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 편의 글은 하나의 소주제를 형상화하는 단락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주제문을 찾아서 연결하면 그 글을 제대로 요약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몇 개의 단락의 내용을 하나 혹은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도 있다. 글 전체의 논지를 해치지 않고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sup>27</sup> 문학 작품을 읽고 요약/정리한 내용에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더하면 독서 감상문이 되고,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해석이나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하면 논증적 보고서가 된다.

독서 감상문은 책의 내용과 주제, 저자의 의도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제목을 붙이고 책 제목은 부제로 처리한다. 서론에서는 책의 줄거리, 저자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 책

27 오성호, 『대학 글쓰기』, 세문사, 2008, 223쪽.

을 읽게 된 동기나 이유에 대해 언급한다. 그 책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첨언한다. 책을 반복해서 읽고 각 장별 중심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마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삶에 드리운 영향을 매끄럽게 언급한다. 책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어떤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문을 쓴다면 그 작품에 대한 서평이나 평론을 참고할 수 있다. 저자의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것보다는 비판적 거리를 두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글쓴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sup>28</sup>

논증적 보고서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나 자신의 주장을 학술 논문의 형식으로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실한 증거와 자료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독창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요약/정리 보고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이나 견해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 비교/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생각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인문/사회 과학 분야의 조사 보고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현황이나 시설물의 사용 실태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객관적인 여론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본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 자주 활용된다. 이공 계열이나 자연 과학 분야의 조사 보고서는 어떤 대상을 성실하게 조사/관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객관적 사실을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표지-목차-조사 배경 및 목적-조사 대상-조사 방법-조사 기간-조사 내용-조사 결과-결론-참고문헌-부록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실험 보고서는 이공 계열이나 자연 과학 분야에서 어떤 대상을 실험하거나 학습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글이다. 언제든지 반복 실험을 통해 재언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 보고서는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실험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으로 실험의 목적, 원리와 이론, 실험 기구와 실험 방법 등을 기술해야 한다. 실험 노트는 실험

상황에서 관찰한 사실을 기록해 두는 곳이다. 유의점으로는 우선, 오기했을 때는 오기 내용을 완전히 지우지 말고 이전 값을 두 줄로 그은 다음 새로운 값을 적어둔다. 둘째, 실험 결과를 고찰하고 의문점과 문제점을 적는다. 셋째, 실험 중에 일어난 중요 사항을 적는다. 결과 보고서는 실험 노트에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실험한 사람의 논리와 추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실험값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적는다.<sup>29</sup> 실험 보고서는 실험한 이론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지-목차-실험 목적과 의의-선행연구나 이론적 배경-실험 도구 및 방법-실험 결과 및 고찰-결론-참고문헌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sup>30</sup>

### 3.2. 자기소개서

이력서가 한 사람의 인생 역정을 글로써 간결하게 비추주는 고정된 평면거울이라면, 자기소개서는 그 사람의 여러 모습을 역시 글로써 보여주는 다면의 입체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자는 이력서에 감춰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며 인사 담당자 혹은 면접관에게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기술한다. 자기소개서는 한 개인의 원만한 성장 과정, 성격 및 대인관계, 삶의 모토와 직업의식, 조직속의 적응력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 추진력, 강인한 의지 등을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말해주는 참신한 글쓰기이다.<sup>31</sup>

자기소개서의 분량은 대개 A4 용지 1~2매로 제한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을 짧게 기술한다. 대학 시절의 동아리 및 봉사 활동, 해외연수 경험, 지원 분야의 업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이나 인턴쉽 경험을 다소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좋다. 자신의 장점과 전문지식을 지원 회사

29 경기대학교 글쓰기 연구회 엮음, 『글쓰기 이론과 실제』, 260~263쪽.

30 박호관 외, 『대학 글쓰기』, 202쪽.

31 위의 책, 240쪽.

28 위의 책, 215~216쪽.

나 기관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시하고, 단점을 문제해결 능력과 결부시켜 상쇄한다면 장/단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자신의 성향이나 사회성을 보여줄 수 있는 취미와 관련된 특기 사항은 소개한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의 공감을 얻고,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이념이 자신의 전공, 적성 및 비전 등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지원동기로 각인시킨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임원, 그들의 경영 마인드, 조직 문화 등을 미리 점검하고, 입사 이후의 목표와 계획, 자기 계발을 위한 비전도 밝혀야 한다.

솔직한 서술이 자기소개서의 생명이다. 간결하게 쓰면서도 읽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장과 강한 인상을 남긴다. 부드러운 어법과 압축된 시어가 글의 힘을 느끼게 한다.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의 이어쓰기에서도 논리적 전개로 이야기 서술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글을 읽은 사람을 친근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소재나 어휘로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입말은 피하고 표준어를 사용한다. 글쓰기의 마지막 작업은 다시 글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다. 자기소개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 3.3. 인터넷 글쓰기

앞서 살펴본 보고서나 자기소개서는 대학에서의 일반적인 실용적 글쓰기에 속한다면, 인터넷 글쓰기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대표적인 소통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예전에 우리는 정성스럽게 펜과 손을 움직여 썼던 편지나 엽서, 긴급한 소식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방문하곤 했다. 이제 그런 전통적 소통 방식은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컴퓨터나 휴대폰을 열어 인터넷에 접속하여 메신저나 전자메일 혹은 문자나 카톡을 통해 순식간에 소식을 전하고 이를 기록해 둘 수 있다. 인터넷 글쓰기와 일반적인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환경의 변화

에 있다고 할 것이다.<sup>32</sup> 인터넷 글쓰기는 매체, 독자의 수와 반응, 글쓰기 방식과 내용, 기록 및 보존성 등에서 일반적인 글쓰기와는 크게 다르다.

가장 큰 변화는 독자층의 규모와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 및 그 속도에 있다. 블로그, 홈페이지나 게시판의 좋은 글은 조회나 폼, 링크의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한다. 인터넷 글쓴이는 글에만 의존하지 않고 음악, 동영상, 그림 등의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단순한 글쓰기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하루하루의 기록을 블로그에 올릴 수 있고 그 기록은 남는다. 게시된 글은 시간대별로 저장되어 언제든지 키워드로 검색하여 다시 읽을 수 있고, 전혀 새로운 다른 글을 쓰거나 이전에 쓴 글의 일부를 따른 관점에서 수정할 수 있다.

인터넷 글의 종류로는 전자메일, 블로그, 홈페이지, 게시판, 토론방, 온라인 신문, 웹진 등이 있고 누구나 이를 이용하거나 글을 투고할 수 있다. 전자메일은 공적인 관계의 사람들, 상사, 직장 동료, 그룹 회원들 사이에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동아리 모임 알림 방법은 문자나 전자메일 모두 좋다. 수업 관련 교수와의 문답은 수업 알림 게시판이나 전자메일이 적합하다. 우선, 친근한 사람들과 메신저나 문자를 이용하는 경우 입말을, 전자메일에서는 글말을 쓰는 것이 좋다. 채팅이나 문자 대화가 수다를 계속 떠들 어대는 것이라면, 메일은 업무 내용이 주가 되므로 격식이 필요하다. 둘째, 전자메일은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발신자와 제목, 키워드가 한 문장 안에 드러나게 한다. 셋째, 전자메일은 인사말-본문-결어-보낸 사람의 순서로 하고 본문은 3~4개의 키워드로 구성하여 분량이 길지 않도록 한다.<sup>33</sup>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개개인을 위한 사적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타인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다. 많은 블로

32 경기대학교 글쓰기 연구회,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고요아침, 2011, 245쪽.

33 위의 책, 247쪽.

그에는 글 외에도 사진, 동영상, 음악 등도 제공한다. 블로그의 자작 글은 진실하고 솔직한 내용이면 된다. 웹에 있는 다른 사람의 글을 펴오거나 링크하거나 인용했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홈페이지, 게시판, 토론방 등은 온라인상의 공공장소이다. 타인에 대한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독설을 목적으로 한 댓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 근거가 없거나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리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자신의 글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전에 글을 다듬고 제목을 엄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 3.4. 글쓰기 교실의 운영

최근 많은 대학이 기초 글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글쓰기 클리닉이나 교육원, 글쓰기 교실 등이 그런 것이고 글쓰기 상담 및 첨삭 피드백,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한대학교는 <사고와 표현>이 기초적인 실용적 글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정규수업 외에 상시적인 도움을 주는 글쓰기 과외 활동을 위한 부서가 없다. 하여 언젠가든 자유롭게 반복적인 글쓰기 상담과 코칭을 제공할 수 있는 구암교육원 산하에 글쓰기 교실의 운영을 제안한다.

우선 글쓰기 교실은 학생들의 글에 대한 첨삭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첨삭은 학습자가 쓴 글의 장단점을 가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도하여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이다.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지 못한 두서없는 글을 교수자가 첨삭하면 학습자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 대면 첨삭은 지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 정도를 즉각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실행하기 어렵다. 지면 첨삭은 첨삭지에만 첨삭하는 흔한 방식으로 교수자가 언제,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지도할 수 있다. 온라인 첨삭은 지면 첨삭

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질의 및 응답을 활용할 수 있어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sup>34</sup>

배재대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을 튜터 자원으로 선발하여 심도 있는 글쓰기 교육 훈련을 받게 한 후 그들이 신입생 학습자에게 글쓰기 전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sup>35</sup> 교수자보다는 동료 튜터가 제공하는 첨삭 조언은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글쓰기 과정을 즐기면서 스스로 실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sup>36</sup> 글쓰기 정규수업이 한 학기로 제한되고 클래스 당 수강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세한대학교도 우수한 학생이나 대학원생을 글쓰기 도우미로 선발하여 첨삭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교수자나 동료 학생, 글쓰기 교실의 피드백을 받는다면 더 나은 학습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로 글쓰기 교실은 대학 도서관과 협력하여 독서 감상문 및 자서전 쓰기, 여러 형태와 성격의 읽기 동아리를 운영한다. 현재 구암교육원에서는 사고와 표현 능력 키움 경진대회, 의사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 1 교수 1 비교과 프로그램, 1 교수 1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개 교수자의 이론적 강의에는 관심과 참여가 떨어지는 편이다. 그보다는 독서가 글쓰기의 접근을 아주 쉽게 한다. 꾸준한 읽기를 통해서만 글쓰기의 문턱에 들어설 수 있다. 독서는 다양하고 깊은 지식과 정보, 사람들의 공감과 자기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법을 익히고 활용하는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의 종합적 사고 활동이고 창조적 과정이다. 이를테면 인간 내면의 실천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이다.<sup>37</sup> 대학생은 문학 작품의 읽기를 통해 세계를 사유하고 문학적 언어와 상상력, 창조적인 삶의 원동력을 경험한다.

34 김설화, 「한국 대학생의 글쓰기 첨삭 지도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10, 23~25쪽.

35 이런 유형의 글쓰기 도우미 시스템은 현재 용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다. 교수자 한 사람이 수업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많은 학습자의 개인별 첨삭 지도를 해야 하는 글쓰기 교육의 특성상 수업에 도움을 주는 보조강사나 연구원 혹은 튜터가 절실한 상황이다.

36 김화선, 이희영,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 진단과 발전 방안 연구」, 103~106쪽.

37 오성호, 『대학 글쓰기』, 29쪽.

‘독서 클럽’, ‘재학 중 인문학 도서 40선 읽기’, ‘독서 인증제’, ‘교양도서 공모전’, ‘독서 커뮤니티’ 등이나 <다빈치 명저 읽기>, <인문학 독서토론>, <명저 읽기와 글쓰기>, <독서와 표현>, <읽기와 토론>, <명저 세미나>, <시적 인간의 세계 읽기> 등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읽기 동아리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책을 읽고 스스로 교양과 전문지식을 쌓아가는 넓은 의미의 글쓰기 활동이다. 다독은 베스트 셀러 또는 자기계발서 읽기에만 골몰하는 대학생의 독서 편중을 해결해주는 데도 필요하다.<sup>38</sup>

셋째로 글쓰기 교실은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글쓰기와는 조금 다른 창조적 글쓰기 프로그램이나 공모전을 활성화한다. 말로 된 광고 텍스트와 영화 감상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창조적인 글쓰기를 시도함으로써 21세기가 요구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sup>39</sup> 학생들은 학내외의 여러 이슈를 주제로 창작 글을 쓰고 교내외 글쓰기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자신의 글을 공유하고 상을 받는 데서 오는 자존감과 자신감의 상승, 글쓰기의 긍정적 가치와 매력을 경험한다. 자신의 글을 실명, 소속학과와 더불어 발표하는 자긍심은 학습자가 주체적 글쓰기 작업을 학문적 책무로 인식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또 세한인은 글쓰기 교실 홈페이지의 여러 의견을 주고받는 많은 댓글을 통해 글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 4. 결론

대학에 이제 막 들어온 신입생은 중고등학교의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지식 주입식 수업에 익숙해 있어 교사가 전달하는 정보와 지식, 정답을 고르는 기술을 길러서 오로

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았다. 기초적인 글쓰기나 창의적인 학습 활동은 설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학습 활동은 다양한 책을 읽고 여러 학술 담론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고나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글쓰기로 이루어진다. 참신한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대학 신입생이 맨 먼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으로 글쓰기의 필요성과 의의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글쓰기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말로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상세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학문공동체의 학문적 소통능력을 확장하여 독립적이고 융통성 있는 교양인의 양성에 기여한다.

대학은 지역사회, 국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소통과 인성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리더십을 키우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글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로서의 가치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공유된다. 대학인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권리를 되찾는 동시에 청년기에 잃어버리기 쉬운 바른 자아를 확립하여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이는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글쓰기는 지식을 쌓고 이론을 배우기 위한 과목이 아니다. 글쓰기에는 왕도가 없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 보는 것이 글쓰기의 기술을 키운다는 원칙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학이 대학인의 지적 능력, 욕구 그리고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에게 최적의 글쓰기 환경을 만들어 주고, 교수자는 하루아침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조급함을 접고 그때그때 꼭 필요한 조언이나 피드백을 제공하면 된다. 쓰기 과정의 지속적이고 거듭되는 연습으로 글쓰기를 훈련하고 좋은 글을 생산하는 능력의 함양은 학생 자신의 몫이다. 대학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분발, 큰 성과를 기대한다.

38 이주영, 「대학 글쓰기의 성찰적 효과 연구: 자서전과 칼럼 글쓰기의 교육 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1~5쪽.

39 경기대학교 글쓰기 연구회,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87쪽.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강은교 외, 『사고와 표현: 우리시대 글쓰기와 말하기의 방법』,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6.
- 권혁명, 「대학 글쓰기의 교육현황과 그 발전 방향: 고려대학교 <사고와 표현> 강의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20호,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2, 149~170쪽.
- 고려대학교 사고와 표현 편찬위원회, 『대학 글쓰기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고성환, 이상진, 『글쓰기』, 방송통신대출판부, 2019.
- 경기대학교 글쓰기 연구회 엮음,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고요아침, 2011.
- 김설화, 「한국 대학생의 글쓰기 침식 지도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10.
- 김화선/이희영, 「대학 글쓰기교육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권 1호, 한국교양연구학회, 2007, 93~114쪽.
- 글쓰기 교과 교재편찬위원회, 『성찰과 표현』,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대학글쓰기 교재편찬위원회, 『대학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공통),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 박호관 외 『대학 글쓰기』, 대구대학교 출판부, 2013.
- 상명대학교 사고와 표현 편찬위원회, 『사고와 표현』, 역락, 2020.
- 서재원, 『대학 글쓰기와 토론』, 서울: 북스힐, 2013.
- 오성호, 『대학 글쓰기』, 세문사, 2008.
- 우기동, 「대학 시민교육, 그 철학적 토대」, 『시대와 철학』 2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3, 237~267쪽.
- 이주영, 「대학 글쓰기의 성찰적 효과 연구: 자서전과 칼럼 글쓰기의 교육 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2.
- 장미영 외 『융복합시대의 교양 글쓰기』, 글누리출판사, 2017.
- 전지니, 「수용자를 위한 대학 글쓰기 교재개편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36집, 2015, 78~105쪽.
- 조미숙, 「대학 기초 글쓰기 현황과 개선 방안」, 『동남어문집』 42호, 2016, 271~298쪽.
- 주민재, 「자기서사 쓰기의 스토리텔링 전략 분석」, 『한민족어문학』 71, 한민족어문학회, 2015, 179~206쪽.
- 정기철, 「21세기 대학 글쓰기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남어문집』 제33편, 2009, 21~44쪽.
- 정희모, 「디지털 시대에 주체 회복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 『한민족어문학』 71, 한민족어문학회, 2015, 11~32쪽.
- \_\_\_\_\_, 『글쓰기 교육과 협력학습』, 삼인, 2006.
- 한효석, 『이렇게 해야바로 쓴다』, 한겨레출판, 2019.

## Abstract

## Direction of Correct Writing and Suggestions for Practical Education of Sehan University's 'Writing' Liberal Arts Subject <Thoughts and Expressions>

Kim, Sung-Chul · Kim, Mi-Kyung | Sehan University

In college, general knowledge is an important part of your major. The goals of liberal arts can be largely summarized as strengthening basic studies, character education, and cultivating self-expression skills. Writing is an essential requirement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education and learning reaching the highest level. This is because the ability to write is the ability to think. The ability to reflect and express oneself is an essential quality required for active communication with the society to which one belongs. College students develop integrated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by analyzing various texts and organizing solutions to problems in writing. Writing is a process of finding identity that reflects the writer's thoughts, starting from the process of selecting each expression. Each and every word a college student chooses is a process of finding his or her identity. Now writing is not the exclusive domain of experts with specialized insight and knowledge, but has become everyone's interest. Ordinary people, who had previously played the role of passive readers, have emerged as subjects of writing, actively distributing the articles dealing with not only political/social issues but also personal interests and hobbies through cyberspace and reproducing them through print media. The writer becomes a new knowledge producer in the related field. College students must also lead the production and innovation of knowledge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aim to present the arguments that Sehan University students should pay attention to in their writing practice, examine the correct direction for writing that focuses on communication and knowledge production while exploring identity, and seek practical suggestions necessary for efficient writing education at Sehan University.

**Keywords** liberal arts knowledge, major, writing, communication and identity, knowledge production

이 논문은 2024년 5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6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